



감염인이 만든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다면?

레드리본은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2005년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에이즈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에이즈 인식전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누가 만든 음식이든 즐길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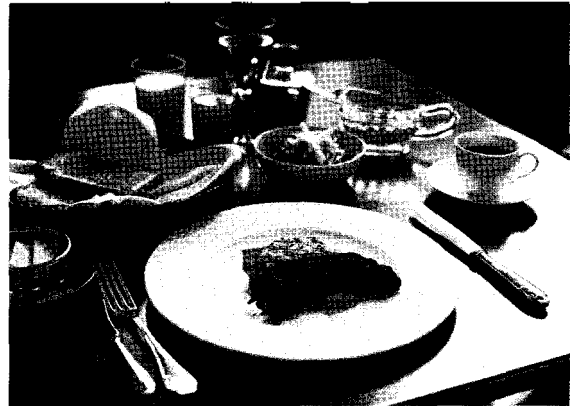
반찬타령 없이 비교적 데면데면하게 아무거나 잘 먹는 성격인 나이지만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같다.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 있는 한줄기 의심.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혹시라도 정말 감염될 가능성이 1%라도 없을까 하는 걱정. 사실 이런 작은 의심과 걱정이 인간사를 이상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이 만들었다는 것이 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적어도 첫 직장이 제약회사였던 덕에 들은 풍월과 내가 아는 상식으로 감염인이 조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 누가 만든 음식이든 아무 주저 없이 즐길 수 있는 상식 정도는 있다. 기분 나빠서 못 먹나? 없어서 못 먹지. ^^

류동수(32세 · 회사원)

음식에 거부감은 없지만...

HIV에 감염된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에이즈의 감염경로를 생각하면 에이즈 환자가 음식을 만들어도 일반인이 만든 음식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칼을 자주 다루는 요리사는 직업의 특성상 본인의 주의가 먼저 요구되어야 하겠지만, 손님에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손님 앞에서 칼을 잘못 다루다가 본인의 혈액이 손님에게 튀어 눈의 각막에 들어가

면 에이즈에 걸리게 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정말 0.01%도 생기기 힘든 경우의 한 예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배타성은 나도 지니고 있는 듯하다.

김동욱(25세 · 내학생)

맛만 있으면 오케이~

에이즈 감염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모두 에이즈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금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음식이 맛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장애인인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황우석 교수께서 에이즈 감염 치료제도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전 국민의 상당수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뉴스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에이즈는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경우나 저소득국가 또는 비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에서 발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이즈라는 병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부의 문란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외도, 성생활도 즐겼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에이즈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최우철(45세 · 회사원)

감염인이 만든 사실을 안다면 먹지 못할 듯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생면부지의 사람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보인다. 피부가 상점하고 팔다리와 몸 여기저기에 붉은 반점이 터질 듯이 부풀어 있고 애처로운 표정.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멍한 모습으로 힘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어느 아프리카인의 영상이 생생하게 보인다. 내가 기억하는 에이즈환자의 모습.

음식을 대접할 정도라면 외견상으로는 잘 알아볼 수는 없을 듯이 보이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도 가능하면 피할 것 같다. 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으로 악수하는 것도 꺼려할 것 같다. 아예 함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든다. 내가 그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

김영복(54세 · 회사원)

진수성찬이라도 먹을 엄두 안나

감염인이 만든 음식을 대접받는다면, 모르는 상황에서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감염인이 만든 음식을 알았다면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음식을 통해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나 또한 음식을 통한 감염은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예를 들면, 상처가 난 곳을 통해(이 역시도 확실치는 않지만), 전염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해도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에이즈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마스크를 통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미지로는 “전염되는 병”이라는 생각이 전부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전염되는 병”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

신더희(24세 · 회사원)